

주식백지 신탁제도 안내

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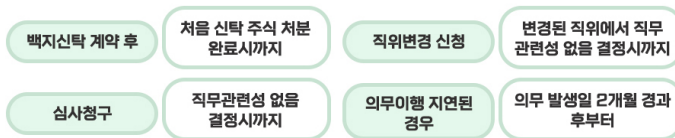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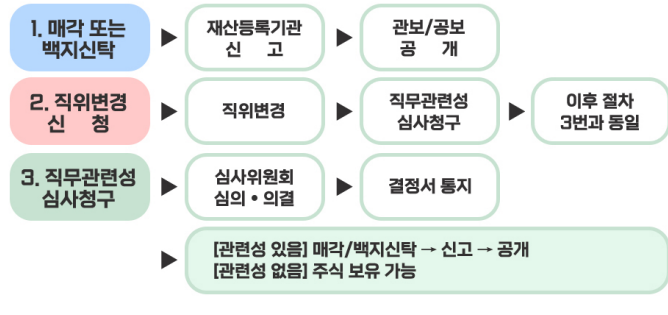
대상자

재산공개대상자(구청장, 구의회 의원)

이해관계자

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(재산등록 대상 친족)

1. 주식백지신탁제도 흐름도



2. 신고기준일(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)

-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※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
-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
-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(법 제6조의3 제1항·제2항)
-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
-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,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(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)
-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,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(영 제27조의9)
- 공개대상자등의 직무(상임위원회, 보직 등)가 변경된 날

3.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

공개대상자 등은 신고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 및 백지신탁

매각·백지신탁신고서와 매각·백지신탁공개목록
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·4서식) 작성 후 해당 등록기관 제출
※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 공개

4.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
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

법 제14조의5 제6항

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

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

법 제14조의13

보유 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

[제출서류] 심사청구서, 보유주식 관련자료(잔고증명서 등), 지연사유서(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)

5. 심사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

직무관련성 “없음” 결정 받은 주식 ▶ 보유 및 거래 가능
※ 직위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

직무관련성 “있음” 결정 받은 주식

-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▶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
※ 전부 매각(백지신탁)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일부 매각(백지신탁) 가능
-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▶ 보유 가능
※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 원 초과 시,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

6.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

- 사례 1 연도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까지만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지연
- 사례 2 ○○시의회 위원회 위원으로 ‘직무관련성 없음’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△△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였으나 심사청구 지연
- 사례 3 재산등록의무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등의 주식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심사청구 지연

“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이행일(2개월)은 재산신고기간과 상이합니다.”

7. 의무위반시 제재

- 경고 및 시정조치 (법 제14조의5 제11항)
-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)
-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(법 제22조)
- 주식백지신탁 거부죄(법 제24조의2)

“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”